

시 한 구절·통기타 선율...양림동서 물드는 가을



13~15일 양림동 일일
숲속 음악회·국내외 작가 전시
테마여행·엽서 만들기 체험도

오월기념각, 우일선 선교사 사택, 다형 다방, 팽귤마을, 한화원미술관...

구한말에 지어진 고래등 같은 한옥과 소박한 민가, 현대적인 문화 공간 등 100여 년 전의 문화와 정취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양림동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자.

'제7회 구모봉 양림'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및 사직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버들피리 소리 들려오는 가을 이야기'를 주제로 양림동 역사, 문화, 인물, 근대 유산 가치를 재조명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시인 안도현

13일 오후 7시 사직공원에서 열리는 오프닝 행사인 '가을 숲속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선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가수 박강성 등이 출연한다.

양림동과 인연 맺은 화가들 작품, 100년 역사를 담은 사진 등 전시는 축제 개막에 앞서 11일 마을 미술관 곳곳에서 문을 연다. 양림동의 문화 인물을 비롯해 서양 화가 황영성 아카이브전, 양림동의 화가들, 한희원 작가의 양림 이야기전, 양림기

전, 양림 100년 사진전, 정은학의 숲속 미디어아트, 팝아트로 그린 양림의 얼굴, 수채화 권자용 작가 초대전, 국내외 작가 5명의 전시회 등이 펼쳐진다.

또, 13일~15일에는 공연과 특별 무대, 참여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

음악회, 오케스트라, 문화 난장, 통기타 연주, 재즈 페스티벌 등의 공연이 축제 기간 동안 무대에 오른다. 가을 숲속 음악회를 비롯한 꿈의 오케

스트라 초청공연, 날아라 펑귤, 양림 문화 난장, 양림의 가을 하모니, 사직 통기타 데이, 해와 달 밴드 초청공연, 클래식과 싱어즈의 가을여행, 함세아의 토크 콘서트 등이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통기타 디제이 콘서트와 가을 빛 사직골 향연, 음악극으로 본 양림, 양림 재즈 페스티벌, 홀리 앙상블 콘서트 등이 관광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역사문화 탐방, 주제 여행, 시화 등 시민 체험 행사도 펼쳐진다.

참여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양림동 테마 투어, 수피아여자중학교 학생 300여명과 함께하는 수피아소녀들의 양림시화, 엽서에 시와 그림, 사연을 적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가을우체통 등이 준비됐다. 또, 양림 100년 역사문화탐방, 양림 생생여행 사진, 숲속 시인의 책방, 양림 숲속의 화가들, 나도 양림의 시 낭송가, 양림동 근대예술 여행, 양림의 영화 상영, 오소수 시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양림살롱 등이 마련됐다.

특별무대에서는 안도현 시인의 인문학 강좌인 '내에게 묻는다'와 양림재즈페스티벌, 더(the) 1904 아카데미를 만날 수 있다.

전문의기자 ej6621@kwangju.co.kr

강속자오페라라인 '마술피리' 공연

윤상호 연출·김영언 지휘...12~14일 광주문예회관

(새강속자오페라라인의 제25회 정기공연 오페라 '마술피리'가 오는 12일, 13일 오후 7시 30분, 14일 오후 3시, 7시30분에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새강속자오페라라인이 준비한 이번 오페라는 2막으로 구성돼있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로 모차르트 특유의 감성이 담긴 작품이다.

어둠과 빛의 대결,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 179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됐다.

모차르트는 이 작품에서 독일 전통 오페라를 하나의 장르로 완성했을 뿐 아니라 오페라 세리아와 오페라 부파의 요소도 도입, 종합적인 작품을 완성했다.

'마술피리'는 왕자 타미노와 공주 파미나가 갖가지 시험과 고초를 통과하여 마침내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으로 소프라노 조수미의 주요 레퍼토리인 '밤의 여왕' 아리아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공연의 연출은 윤상호가 지휘는 김영언이 맡았으며, 광주시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KOL합창단, 피아니스트 오해은, 윤상아와 협연한다.

타미노 역에 윤승환, 김정규가, 파미나 역에는 윤하나, 정수희, 손숙경



윤승환

윤하나

이, 밤의 여왕 역에는 양승이, 유성녀가 출연한다.

파파게노 역에 한정현, 김경호, 파파게나 역에 신은선, 장마리아, 이바에 김일동, 이성현, 이은식, 정해진, 손찬희, 표현진, 사은정 등이 출연한다.

(새강속자오페라라인은 지난 2001년 창단공연을 가진 이래 지난 16여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30여 편의 크고 작은 오페라 공연과 100여 회의 공연을 올렸으며 정기공연 이외에도 가곡과 오페라의 밤, 찾아가는 음악회 등도 선보였다.

티켓은 인터파크, 강속자오페라인, 현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B석 1만5000원, A석 3만 원, R석 7만 원, VIP석 10만 원이다. 7세 관람가. 문의 062-514-7090.

전문의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로 잇는 전라도 새 천년...13~15일 '전남생활문화예술페스티벌'

버스킹·체험행사 등 다채

"전라도 천년, 문화로 읽고 예술로 잇다"

10월 18일은 전라도 명칭이 생긴 지 1000년이 된다.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당시 전북지역을 관할하던 전주목과 전남 제주의 중심이던 나주목의 첫글자를 따서 전라도가 됐다. 전라도의 천년은 그만큼 오랜 역사성과 향토성을 지닌다. 전라도인들의 삶과 예술이 오늘의남도 문화를 이루는 토대가 됐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깊어가는 가을 전남의 생활과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축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전남문화관광재단(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오영상)은 도민과 함께하는 '2017 전남생활문화예술페스티벌'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무안군 중앙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단체 42곳의 성과발표회를 비롯 생활문화예술 단체 11개 팀의 공연, 클래식·국악·락 공연, 예술체험 행사, 아트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첫 날인 13일은 전야제가 펼쳐진다. '夜·흥(한밤의 흥겨움)'이라는 테마로 '히어로'의 댄스무대가 막을 열고 인디밴드



지난해 열린 '전남생활문화예술페스티벌' 모습.

<전남문화관광재단 제공>

인 락그룹 '무음'과 '밴드민하'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둘째 날 14일은 소호초등학교 '여수영재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행사가 펼쳐진다. 이어 영화 파파로티 실제 주인공 성악가 김호중, 바퀴달린 성악가 이남현의 축하공연이 선을 보인다. 또한 광양시립국악단과 순천 이윤천 발레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비보이 댄스그룹 '빅사이즈'의 공

연, 힙합 그룹 '익스'의 희희樂ROCK 페스티벌이 선을 보이고, 찾아가는 영화관 '청년경찰'을 상영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 15일에는 극단 아따의 '거리인형극', 청춘미크 버스킹 공연, 목포문화재단의 '가족오케스트라', 나주시립국악단의 '국악관현악', 서영무용단의 공연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상설행사로는 거리마임퍼포먼스(극단 새결), 손 인형 만들기(인형극단 푸르고

래), 아름다운 구조를 조립(한국육군측원구회) 등 30개 단체가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아트마켓'을 비롯해 (전통놀이 체험), 문화재발굴체험, 전남관광사진전, 문화파출소 관화그리기, 문화다양성 도민 캠페인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펼쳐질 예정이다. 문의 061-280-584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한호·강만 등 지역 작가 작품세계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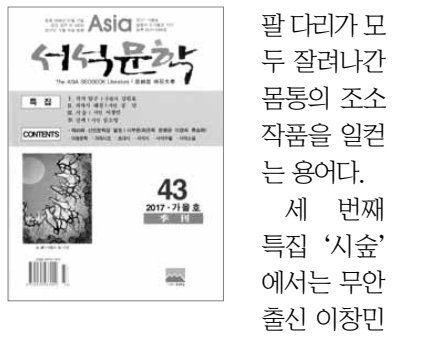
광주지역 문예지 '아시아 서석문학' 가을호 발간

광주에서 발행되는 문예지 'Asia 서석문학'가을호(43권·사진)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 '작가 탐구'에 김한호 수필가를 초대했다. '김소월 시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가이면서 수필가인 김 작가는 2013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수필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수필은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식견을 형상화한 글이라는 평이 따른다. 여기에는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의 의지가 투영돼 있다.

두 번째 특집으로 강만 시인의 자작시 해설이 수록돼 있다. 광주문인협회장을 지낸 강 시인은 '토루스2', '고추잡자리' 등 모두 7편을 게재하고 직접 해설을 했다. 대표작 '토루스2'는 모든 통로가 막힌 절망적 공간에서 잔혹하게 학살당했던 광주시민의 운명을 형상화했다. 원래 '토루스'는 머리와



팔 다리가 모두 잘려나간 몸통의 조소 작품을 일컫는 용어다. 세 번째 특집 '시숲'에서는 무안 출신 이창민 시인을 조명했다. '풍경', '가거도' 등 모두 9편이 수록된 작품에선 오랫동안 시를 습작하고 다듬어온 공력이 묻어난다. 남도문학 부회장과 서은문학 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시인은 스승인 고 문명란 시인을 통해 시를 쓰는 법, 시를 대하는 법을 배웠다. 지난해 고회를 맞아 첫 시집을 펴낸 만큼 시적 성취가 만만치 않다. 이밖에 신예 심소영 시인의 '그리움' 외 모두 10편과 아시아지역 문화탐방을 소재로 심재학, 신서영, 이재월 시인의 신작이 실렸다. 박성천기자 skypark@

농촌 · 어촌 · 산촌 三村에서 만나는 착한 농부

이연복

강례오

매주 금요일 밤 8시 20분

유쾌한 시골촌

착한 농부를 찾아서

CHANNEL A